



## 사업 성과

---

1. 이 사업의 국가 조정관은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우르트나산이고, 전문가팀 리더는 NUM 철학부 부장이자 몽골 문화연구협회장인 도자그바이다.

연구팀은 협약에 명시되어있는 개념과 원리들을 기초로 한 몽골 무형유산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협약과 몽골어로 번역된 관련 시행지침서들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와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 50 권 이상의 학술 서적
- 연구 브로셔
- 수 백 건의 기사
- 역사적 자료
- 연구 자료 및 보고서

이러한 자료들은 몽골 무형유산의 역사적인 진화와 현황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자료의 출처는 몽골과학학회 언어문화연구소 (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of Science of Academy), 유네스코몽골위원회, 몽골국립대학교 교수진 및 연구센터 (faculties and research centers of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문화예술연구연구소 (Culture and Arts Research Institute), 몽골국립무형유산센터 (National Cent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장가협회 (Long Song Association), 모린 쿠르 연주가협회 (Morin khuur players' Association), 흐미 연주가협회 (Huumii Players' Association), 기타 정부 및 비정부기관이다.

연구팀은 또한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수집한 20 시간 분량의 기록 영상과 오디오 및 영상 자료들을 검토했으며, 팀 구성원들은 아이막과 울란바토르시의 공무원, 지역 내의 무형유산 전문가와 보유자를 인터뷰하고 연구했다. 연구 작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몽골 지역 내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출판되어 전문가들에게 배포되었다. 국가 조정관 우르트나산은 이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3 차 한-몽 전문가 세미나에서 그것을 발표했다. (발표자료 보고서 첨부)

2. 우선, 우리는 무형유산을 보호 및 유지하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채택을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무형유산 관련 법률 중 특정 항목을 번역하였고, 몽골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무형유산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과 기타 법률 문서의 번역 자료는 몽골이 독자적 법률 수립을 계획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참고서가 되었다.

우리는 또한 베트남과 일본의 문화유산 관련 법 조항을 몽골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법률과 비교하여 공통된 생각과 개념들을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에 반영하였다. 우리는 현재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법률 문서 번역 업무를 진행 중이며 몽골에 적합한 법 시행을 채택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이 국가들의 무형유산보호와 보유자 홍보 관련 법 조항을 검토 중이다.

유네스코에서 발행한 무형유산 관련 문서와 참고자료에 대한 번역 및 지속적 검토는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예를 들면, 2003 년 협약의 개념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몽골의 무형유산 종목을 분류하기 위한 아래의 카테고리를 개발했다.

- a. 몽골어로 표현되는 무형유산  
모국어, 동화, 전설, 찬가, 희망가, 관용구, 전통시, 행복을 비는 시(tsatsal)와 구, 혀말기(tongue twisters), 민속시 대회(dairaltsaan), 기타 구전과 문학 작품
- b. 공연예술 및 형태  
전통 장가 및 단가, 흐미(목구멍 노래), 휘파람 노래, 모린 쿠르(마두금), 쓰루(백파이프), 비 빌기(춤), 째(가면춤)전통춤 형태
- c. 사회 관습, 의식, 축제 행사  
전통적인 풍습, 기술, 의식, 축제 행사 등
-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우주, 물줄기, 하늘과 날씨의 패턴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 주위 자연과 환경에 대한 접근, 신성한 장소와 관련된 풍습, 자연 보호와 제약 교리
- e. 전통 공예  
전통 몽골 스타일 보석, 목공품, 목각, 자수, 바느질, 펠트 켈팅, 동물 가죽 예술, 동물 생산품 세공 전통 기술, 사냥과 관련한 전통 기술 등

우리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연구문서의 소견서와 조사 결과에 기초를 두고, 몽골 무형유산과 보유자들의 원형 보존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결정, 등록, 기록,

보호, 전수, 발전 및 홍보와 관련된 법과 규정의 초안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무형유산의 지정, 등록, 보호, 전승, 개발, 국가적 지원 홍보의 규정’ 초안은 다음 부분과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① 목적
- ② 설명
- ③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원형 지정과 등록 (16 항)
- ④ 문화유산 보유자의 권한 (4 항)
- ⑤ 문화유산 보유자의 책임 (9 항)
- ⑥ 문화유산 전수교육자의 권한 및 책임 (4 항)
- ⑦ 관련 공공기관의 권한 및 책임 (9 항).

그러나 제안된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지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규칙’ 초안은 다음 부분과 항을 포함한다.

- ① 일반 조항 (4 항)
- ② 국가위원회 구조 (8 항)
- ③ 국가위원회 구성원의 권한 (6 항)
- ④ 국가위원회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6 항)

초안은 정부와 비정부 기구, 연구자, 학자, 무형유산 보유자, 개인에게 배부되었고, 그들의 의견과 권고에 기초하여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최근 몽골 정부의 결의안에 따라 ‘무형유산의 지정, 등록, 보호, 전승, 개발, 국가적 지원 홍보의 규정’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종 초안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되었으며,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의 법령에 따라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회원 구성’과 ‘무형유산과 보유자의 지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차원의 규정’이 제출되었다. (초안과 규칙 보고서에 첨부)

이러한 절차 및 규정 초안은 문화 및 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현재 법률 체계와 구조, 실제적인 현실의 요구뿐만 아니라 몽골의 역사, 전통과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적절히 계획되고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안은 깊이 있는 조사를 토대로 새롭게 수정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무형유산의 지정, 등록, 보호, 전수, 발전 및 국가적 지원의 홍보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 2007 년 한국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몽골의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 결정, 계획하려는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2008 년 몽골 전문가와 조사자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양국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 타당성을 토론하는 2 번의 정책 기반 회의의 개최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황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환 방문과 회의는 몽골 무형유산 지정, 보호, 유지뿐만 아니라 몽골이 유네스코 협약의 실현을 목표로 진행 중인 광범위한 업무 착수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했다. 3 차 공동 세미나는 2008 년 12 월 12 일과 13 일 양일간 몽골과 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으며, 향후 활동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미나 사진 참고)

#### 몽골 측 참석자

- 에르덴벳 (G. Erdenbet /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과 과장)
- 우르트나산 (N. Urtnasan / 몽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소개’사업 국가 조정관)
- 도자그바 (T. Dorjdagv / 몽골 문화연구협회 회장/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소개’사업 전문가팀 리더)
- 자갈사이칸 (Ts. Jargalsaikhan /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과 공무원)
- 엔흐뵈트 (G. Enkhbat / 문화유산센터 소장)
- 푸르베쿠 (Ts. Purevkhuu / 울란바토르시 문화예술팀 팀장)
- 체덴이쉬 (A. Tseden-Ish / 전통 민요 및 춤 극장 원장)
- 전문 비정부기구 설립자, 무형유산 보유자 대표, 현지조사 팀 조사자)

#### 한국 측 참석자

-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 팀장)
-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김용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 조효민 (아·태무형유산센터 교류협력팀 직원)

몽골 대표들은 아래의 주제로 공동 세미나의 토론을 위하여 발표하였다.

-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 무형유산 지정, 등록, 보호, 전수, 발전, 국가적 지원의 홍보 규정 초안
-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국가적 제도 초안
-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의 기준 초안

또한, 몽골 “몽골 서부지역 코브드시, 바양-울기 아이막과 우브 아이막의 무형유산보유자의 현황과 견해”에 대한 현지조사의 보고서가 사업 시행 중에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들의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제도 시행의 정부기관의 역할
- 한국의 무형유산제도
-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 한국 무형유산의 법적 체계

발표와 더불어 한국과 몽골 참석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제안된 제도 초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한국 측의 발표, 권고와 질문들은 매우 귀중하고 몽골 측에 새로운 개념들을 제공했고, 몽골 무형유산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법적 초안과 제안서 작성, 그리고 시행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한국이 제안한 의견과 권고들이 반영되어 규정 초안이 수정되었으며, 이 수정본은 교육문화과학부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미나 기간은 짧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효과적으로 폭넓은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공동 세미나는 향후 후속 작업들에 대한 논의로 끝을 맺었다. 후속 작업들은 몽골의 인간문화재 제도 시행의 타당성 조사,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기타 관련 국가들의 제도와 적합한 법칙의 수집 및 검토,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긴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들에 대한 출판 작업이 논의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의 시행에 초점을 맞춘 협력 활동에 동의했다. 그 예로는 몽골 무형유산과 보유자들의 원형 지정, 보존을 위한 법적 체계 수립 및 시행, 무형유산 유지 및 발전, 무형유산 보호와 유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연수, 연수 자료, 교과서, 안내서와 지침서 출판, 무형유산 연수 개최 등이 있다.

참가자들은 몽골의 비 빌기(춤), 흐미(목구멍 노래), 툴리(발라드), 쓰루(백 파이프), 3 개의 남성 게임, 몽골의 전통 미술 형태 작품들이 유네스코 걸작 목록에 등재되도록 협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국 측의 제안을 고려하여 몽골 측은 향후 2 년간 사업의 주요 활동과 일정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현지조사는 공동세미나 동안 한국 대표단에게 몽골 무형유산 보유자를 소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그들의 귀중한 현지답사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세미나 마지막 순서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4. 무형유산의 원형 및 보유자를 앞서서 발굴, 등록하고 원형의 위치와 분포 범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직접 만나 사진을 촬영하고 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및 비디오 형태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서면으로 보유자들의 감상과 동의를 수집하며 구전 설화 및 역사 이야기와 인터뷰를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6 명 (5 명의 연구자와 1 명의 카메라맨)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팀은 2008 년 11 월 15 일부터 29 일까지 서부 지역 즉, 코브드시, 바양-울기와 우브 아이막의 무형유산 및 보유자를 발굴·조사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다. 팀은 두르엔자갈 (Duurenjargal), 엘크바수렌 (Z. Lkhagvasuren), 나란뵈 (B. Naranbat), 바야스갈랑 (T. Bayasgalan), 앙크자르갈 (Sh. Enkhjargal), 파마수렌 (B. Pamaasuren)으로 구성되었다. (현지조사 사진 첨부)

2008 년 12 월 12 일과 13 일 양일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 3 차 한-몽 전문가 공동 정책 중심 세미나에서 서부 지역의 현지조사 팀 구성원들이 수집하고 조사한 성과물에 기초하여 몽골과학학회 언어문화연구소(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의 연구자인 바야스갈랑 (T.Bayasgalan)이 간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지조사 팀 구성원들은 울란바토르에서 코브드시로, 우브 아이막에서 울란바토르로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동했다. 그러나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총 2500km 를 자동차로 이동했다. 팀 구성원들은 조사여행에서 각 1 인당 50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중 24 명이 질문지를 작성했다. 또한 조사팀은 500 장 이상의 사진 촬영과 10 시간 이상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조사연구는 비 비엘지(춤), 흐미(목구멍 노래), 썬루(백파이프), 이켈 쿠르(만들린), 툴리(발라드), 서사시와 같은 민속 공연예술에 주로 중점을 두었으며, 뿐만 아니라 신성한 산과 관련된 사회적 풍습, 특정한 의식과 언어로 표현되는 무형유산도 연구조사를 시행했다.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라 거주 위치, 분포 범위를 결정하여 지도로 도식화하였다.

뜨루 제작 기술과 기법은 필요한 원재료, 사용되는 식물, 야생 상태에 따라 기록되었다. 문화유산 보유자와의 인터뷰를 가능한 한 많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였으며, 특히 상기의 민속 공연예술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고 교육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그들의 제안서와 동의서에 서명하고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얼어붙은 추운 겨울 날씨로 높은 산길이 눈 더미와 얼음으로 가로막혀 있는 기후 악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에 임하고, 무형유산이 처한 원래의 환경에서 민속공연예술을 기록하기 위해 뛰어난 노력을 해준 현지조사 팀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최근 몽골 동부 지역의 무형유산의 원형과 보유자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기 위한 현지조사 팀이 구성되었다. 이 현지조사의 결과물들은 일정에 맞추어 곧 발표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사업 영역 내에서 활동을 한 가지 더 시작했다. 그것은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예비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의 조사 질의서”와 연구지침서가 울란바토르시와 모든 아이막의 책임 문화예술부서의 부서장에게 배포되었으며, 교육문화과학부의 장관 대리가 서명한 공식 서한이 동봉되었다. 이 전국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가 모든 아이막과 울란바토르시로부터 수집되었으며, 향후 조사 성과물 검토, 분류된 기록 제작, 관련 정보 요약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조사 자료는 철저히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5. 응용문화연구의 효과적인 개발과 유지의 결과로 최근 우리는 무형유산에 관한 방대한 양의 출판물과 기사, 데이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몽골어와 외국어로 번역된 인쇄물들은 연구자와 학자들이 한 자리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몽골 내 다른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연수·연구기관, 협력기관, 학자 및 연구자들 간의 일련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과 관점은 조사·검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최초로 학자·연구자의 의견과 권고, 무형유산 보유자, 기관, 개인의 제안에 기초하여 무형유산 예비 목록을 만들었으며, 그 후 전문가들로부터 심화된 의견들을 다시 받았다.

현재 목록은 임시적으로 ‘몽골 무형유산 형태 목록’으로 명명하였다. 그것에 기초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 ‘몽골 무형유산 대표목록’ 초안이 각각 개발되었다. 이들 초안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권고에 따라 수정되었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되었다. 초안은 교육문화과학부에 의해 승인된 후에 최종 승인을 위해 몽골 정부에 제출될 것이다.

6. 몽골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를 위해 무형유산 중요성, 필요, 요구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연구와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이 대중매체를 통해 시행되었다. 특히 사업팀 구성원들은 예술전공 커리큘럼에 무형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 전공 및 비전공 프로그램에 무형유산 과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교사와 교수들에게 방법론 지침서와 조언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일반 대중을 위한 대중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지도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몽골 무형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칼라 삽화와 기록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국내 전문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자료의 준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